

《鄉藥救急方》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申 榮日 · 朴 贊國

I . 序 論

모든 學問을 研究하는 데에 있어서 그 學問과 관련된 歷史를 아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며 第一 먼저 解決해야 할 先決 課題이다. 이는 어떠한 方法으로 어떻게 研究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指標가 되며, 그 學問의 새로운 章을 어떤 形式으로 發展시켜 나가야 하는 지를 提示하기 때문이다.

韓醫學에서도 이는 例外가 아니기 때문에 韓醫學의 歷史를 研究하여 思想의 흐름이나 理論의 發達에 대한 意見이 定立되어야 現在의 韓醫學의 發展을 꾀할 수 있다. 그런데 醫史學 중에서 中國醫史學은 中國醫書나 史料들이 많이 保存되어 있어서 비교적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 있으나, 韓國醫史學은 現存하는 韓國 固有의 醫書나 史料가 많지 않은 데다가, 韓醫學에 대한 識見이 없는 사람에 의해 研究되어져 깊이를 더해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鄉藥救急方》에 대한 이제까지의 研究도 이러한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여, 단지 鄉藥發達의 先驅者로서 現存하는 最古醫書라는 점 이외의 다른 면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는 이제까지의 研究가 단지 《鄉藥救急方》의 書目を 보고서 이에 대한 解說을 하거나, 高麗時代의 鄉藥이 發達하게 된 歷史的 狀況만을 비추어서 本方書의 役割을 說明하고, 跋文에 나타나는 內容을 整理하는 정도의 水準에 지나지 않아, 本方書에 대한 精確한 價値를 부여해 주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 이유는 本方書에 대한 研究가 韓醫學을 研究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史學家나 醫史學家에 의해 이루어져서 그 실질적인 內容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 안에 收錄된 方文의 내용이나 編制를 통하여 보다 새로운 視覺을 얻을 수 있다고 思料되어 새로이 醫史學的 價値에 대한 의견을 論하

고자 한다.

II. 本 論

1. 原刊本과 重刊本에 關한 研究

1) 《鄉藥救急方》의 出版에 關한 意見

《鄉藥救急方》이 撰述된 時期에 대해서는, 現在 日本의 宮內廳 書陵部에 所藏된 木板本の 跋文에, “昔大藏都監, 刊行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¹⁾이라고 쓰인 것을 볼 때 本書는 高麗時代 江華島에 설치한 大藏都監에서 刊行된 것이므로 撰述된 時期를 大藏都監의 設置 期間인 高宗 19年 (A.D. 1232)에서 高宗38年 (A.D. 1251) 사이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日本 宮內廳에 所藏된 것은 “皇明永樂丁酉七月日”²⁾이라 쓰여 있으므로, 朝鮮 太宗 17年(A.D. 1417) 7월에 崔自河가 私藏한 大藏都監本을 監司 李之剛에 請하여 그의 任地인 慶尙道 義興縣에서 重刊한 것이다.

또한 《世宗實錄》에 “世宗九年丁未九月十一日, 前判羅州牧事黃子厚, 啓《鄉藥救急方》, 印出分於外方, 以廣求生之路, 遂命送于忠清道刊行. (世宗 9年 丁未(A.D. 1427) 9月 11日 前判인 羅州牧事 黃子厚가 《鄉藥救急方》을 印刷하여 外方に 頒布하여 生命을 求하는 길을 넓히기를 啓(請)하니 마침내 命하여 忠清道에 보내서 刊行하게 하였다.”³⁾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世宗이 鄉藥의 發展을 위해 本 方書를 널리 頒布하고자 重刊한 것이나 現在는 傳하여지지 않는다.

2) 《鄉藥救急方》의 方文과 方中鄉藥目草部の 撰述에 關한 意見

現在 전해 내려오는 重刊本이 原刊本을 그대로 編寫한 것이라 하지만 《鄉藥救急方》의 本文에 나오는 鄉名과 方中鄉藥目草部の 鄉名에 서로 다른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韓國醫學大系(卷1), 서울, 麗江出版社, 1987, P.103.

2) 前掲書, P.104.

3) 李朝實錄(第7冊), 東京,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1956, P.557.

藥物名	方中鄉藥目草部	《鄉藥救急方》方文
當歸	且貴草	冀蟲菜根
窮芎	蛇休草	芎芎草
商陸	章柳根	者里宮
柴胡	山叱水乃立	青玉菜
威靈仙	車衣菜	狗尾草, 能消草
早莢	鼠獸木	注也邑
車前子	吉刑菜	大角鱗皮
蒲黃	助背槌	蒲槌上黃粉

上記 내용을 볼 때 《鄉藥救急方》의 上, 中, 下 三卷과 方中鄉藥目草部는 撰述된 時期가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두 사람에게 의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後者의 경우가 前者보다 더욱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原刊本에 없던 것을 重刊本에 插入했다는 것은, 重刊한 崔自河가 醫學에 그만한 造詣가 있었다고 여기지지 않는다. 그는 醫學을 研究하는 官吏가 아니고 行政官이므로 단지 百姓을 救恤하는 政策의 하나로 이 書籍을 重刊하여 百姓들 스스로 그들의 疾病을 治療하는데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여기지기 때문이다. 또한 中國의 藥名 아래에 吏讀文字로 우리가 부르는 藥名을 記錄함에 있어서, 本方書의 方文에서는 ‘鄉名’이라 하였고 方中鄉藥目草部에서는 ‘俗云’이라 하였는데, ‘鄉

名'과 '俗云'에 意味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鄉名'은 高麗時代에 中央이나 國家事業 등의 경우에 쓰여졌던 藥名일 것이며, '俗云'은 各 地方 마다의 藥草를 부르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世宗代에 編纂된 《鄉藥集成方》에서도 《鄉藥集成方》의 原文에는 《鄉藥救急方》을 引用한 內容이 많으나, 鄉藥本草各論에서는 方中鄉藥目草部の 內容을 引用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編纂者가 다를 수 있다는 설을 뒷바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本 方書의 方文과 方中鄉藥目草部가 같이 붙어 있기는 하나 別個의 冊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思料된다.

3) 《鄉藥救急方》의 缺文에 관한 意見

《鄉藥集成方》에 《鄉藥救急方》의 文에 나타나지 않은 8方文이 脚氣門, 諸咳門, 頭門, 中諸毒門, 產難門에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脚氣門

治脚腫心腹脹滿大小便不通, 冬麻子半升, 炒搗研, 水瀝取汁, 米二合, 右和作粥空心食之.⁴⁾

諸咳門

咳嗽 藍漆 去莖葉 細末 每服三錢 酒調飽食後頓服.⁵⁾

頭病門

治頭風裂痛 香附子爲末 每服三錢 臘茶調下 食後日三五服.⁶⁾

中諸毒門

治食白淪鷄子過多所致 蘇一升煮服 仍吐一物如升 涎斗之能動開看 是鷄雞羽趨距 具足能行走 未盡更服所餘藥 又吐如向者鷄十三首而病都差 當時稱妙(一云蒜一升煮服之.⁷⁾

產難門

治

4) 鄉藥集成方全, 서울,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P. 81.

5) 前掲書, P.183.

6) 前掲書, P.220.

7) 前掲書, P.386.

産難 眞油二鍾 調木麥麩如稀糊 頓服卽下效.

治難産及胞衣不下 新牛屎 塗産婦兩乳間卽下神驗 産下後卽洗去 遲則腸
隨出(取新屎法牛性牽出則放屎).⁸⁾

治子死腹中 蓮花葉燒灰 以水調下一錢,

又方 以手執夫帶云 父入子出如此二七遍卽下.⁹⁾

이상의 8方文이 重刊本에서 脫漏된 것은 重刊本の 跋文에 “昔大藏都監 刊行
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¹⁰⁾이라 한 것을 볼 때, 崔自河가 私藏한 原刊本중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뺀 完全한 것 만을 중간한 것으로 보이며, 이 8方文 이외
에도 더 많은 脫漏된 方文이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왜냐하면 世宗朝에 《鄉藥集
成方》을 編纂할 당시 《鄉藥救急方》의 모든 方文을 引用하지는 않았으며, 脫
漏된 方文이 《鄉藥集成方》에서 引用된 것 중의 8개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1) 2) 3)의 의견을 고찰해 보면, 《鄉藥救急方》의 原刊本과 重刊本
에 상당한 差異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2 《鄉藥救急方》의 編制와 內容에 關한 考察

《鄉藥救急方》의 編制는, 書目 및 上中下 三卷에 服藥法, 藥性相反, 古傳錄驗
方, 修治法, 方中鄉藥目草部를 加하여 一冊으로 되어 있으며, 跋文만 있고 序文이
없다.

本文의 內容 目次는 다음과 같다.

書目

上 卷

8) 前掲書, P. 474.

9) 前掲書, P. 476.

10) 韓國醫藥大系(卷1), P. 103.

食毒	肉毒	菌毒	百藥毒
發毒	骨鱗	食噎	卒死
自絞	熱喝	落水	中酒
斷酒	墮折	金瘡	喉痺
重舌	齒齲		

中 卷

丁瘡	癰疽	陽癰	凍瘡
惡瘡	漆瘡	湯火瘡	丹毒
疥疹	代指瘡	癩疽	附骨疽
癰疥疔瘡	剪鐵木竹蠶刺	痔漏腸風	心腹痛
冷熱痢	大便不通	小便不通	陰癩陰瘡
鼻衄	眼病	耳病	口唇病

下 卷

婦人雜方	小兒雜方	小兒誤吞諸物	水腫
中風	癲狂	瘡疾	頭痛
雜方	服藥法	藥性相反	古傳錄驗方

方中藥目草部

跋文

各目次 아래에 두 줄로 注를 달아 그 疾病에 대해 간략히 解說하고, 種類, 服藥方法 등을 간략히 說明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處方의 選擇은 既存의 《千金要方》, 《外臺備要》, 《經驗良方》, 《肘後備急方》, 《聖濟總錄》, 《聖惠方》 등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쉬운 藥材로 構成된 處方을 選擇했는데, 대부분 通治方을 爲主로 하고 있다. 또한 疾病의 分類와 나타나는 症狀에 따라 處方을 달리하고 있지만, 辨證論治에 立脚한 것이 아니며, 단지 對症療法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 列舉한 中國의

醫書中에 《주後方》을 제외한 모든 書籍들이 病名의 아래에 論을 달고 있는 반면에, 本方書에서는 菌毒, 淋疾 등의 몇 개의 條에서만 簡略한 論을 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條에서는 處方의 內容이나 服用方法만을 列舉하고 있다. 上記한 위의 두 條文에서도 論이 있기는 하나 모두, 이 疾病에 대한 病因 病機를 論한 것이 아니고 질병의 種類를 羅列한 것에 불과하며, 더우기 分類한 疾病에 대한 각각의 處方이 없는 것으로 보아 論治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本方書는, 醫師를 敎育하거나 醫師에게 임혀져 醫學理論을 研究하게 하는 目的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단지 窮村僻巷의 醫師가 없는 곳에서도 一般大衆 누구에게나 간단하게 治療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救急法을 모아놓은 民間救急方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高麗中期에는 科擧制度 안에 醫業式과 呪禁式이 있었는데, 여기의 受驗科目에는 《素問》, 《甲乙經》, 《本草經》, 《明堂經》, 《脈經》, 《難經》, 《灸經》 등의 科目이 있었다.¹¹⁾ 그러나 本方書에는 中風條의 理虛肥 積年氣上 如水病 面腫脚不腫方 楮葉 以水一升 煮取六升 去滓 納米煮粥喫의 注에 “素問云面腫曰風”¹²⁾이라고 한 것 이외에는 전혀 上記한 書籍의 內容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 더욱 이러한 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本方書의 方文中에는 烏鷄, 蟹, 白魚, 蠶, 地龍 등을 쓰는 處方이 나오는데, 모두 뒤에 “惡傷(物)命, 今不具注”¹³⁾라고 쓰여 있어 殺生을 하여 生命을 求하는 方法을 기피하고 있으니, 이는 《千金要方》의 太醫精誠에 나오는 “殺生求生 去生更遠 吾今此方 所以不用爲藥者 良由此也. 其螻蟲水蛭之屬 市有先死者 則市而用之 不在此例 如鷄卵一物 以其混沌未分 必有大段而要急之處 不得已隱忍而用之 能不用者 斯爲大哲.”¹⁴⁾의 뜻과 相通한다. 《千金要方》의 內容 중에는 人體를 構成하는 物質이 地 水 火 風의 四大로 이루어져 있다는 論과 疾病의 原因이 101 種類로 이 病因에 따라 發生하는 疾病의 種類도 101가지라고 한 論¹⁵⁾이

11)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P.178.

12) 韓國醫學大系(卷1), 서울, 麗江出版社, P.79.

13) 前掲書, PP. 65, 65-1, 66.

1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

15) 前掲書, P.3.

있는데, 이는 印度醫學의 影響을 받은 증거이다. 上記한 本方書의 內容도 撰述 當時에 佛敎가 國敎로서 盛行하여 모든 學問이나 思想에서 많은 影響을 주어 비롯된 것이며, 특히 佛敎의 五戒中에 不殺生의 戒律을 實踐하고자 한 努力으로 看做된다.

이러한 것 이외에도 本方書의 方文中에 服桑枝法¹⁶⁾이 있는데, 이의 主治를 敘述함에 있어서 어느 特定한 疾病을 治療하는 內容이 아니라, “輕身 耳目聰明 令人光澤”¹⁷⁾한다는 점을 볼 때 道家의 思想이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이러한 점은 三國時代 이후로 佛敎와 道敎가 傳來되어 既存에 있던 모든 分野의 學問과 思想에 影響을 주었으므로 醫學도 이러한 影響을 받았다는 證據가 된다.

3. 方中鄉藥目草部に 關한 考察

《鄉藥救急方》의 上.中.下 三卷 뒤에 方中鄉藥目草部가 있는데, 여기에는 180種의 國產 藥材의 俗名, 氣味, 毒의 有無, 鑑別法, 修治, 採取時期 등을 說明하고 있다. 俗名은 吏讀式으로 쓰고 있는데, 本文에 나오는 鄉名과 여기에 나오는 俗名이 商陸, 柴胡, 威靈仙, 車前子, 蒲黃, 窮芎, 當歸 등의 상당부분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다. 本方書의 主要內容은 《本草經集注》를 그대로 옮겨놓았거나 조금 變形시킨 것이며, 특히 採取時期는 다른 어느 것보다 圖經本草의 說을 따르고 있다. 氣味, 毒性, 主治의 部分은 主로 《本草經集注》를 따랐고, 修治, 採取時期는 《圖經本草》에서 따온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 產地의 이름 중에 東州 등의 中國이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¹⁸⁾으로 보아, 위의 두 書籍을 參考하여 우리나라의 독특한 本草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위의 두 가지 서적 및 몇몇의 本초서를 綜合하여 만든, 宋代의 證類本草 中の 어느 한 卷을 보고 취사 선택하여 그대로 옮긴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俗名을 달아 一般大衆이 누구나 藥을 採取할 수 있게 하였으며, 鄉藥(自國產 藥材의 總稱)이라 한 것을 볼 때, 이는 中國의 陰陽五行理論에 立脚한 우수한 理論을 받아들여 이룩한 高麗醫學의 理論에서, 理

16) 韓國醫學大系(卷1), P.85.

17) 韓國醫學大系(卷1), P.85.

18) 前掲書, P.102.

法方은 中國의 것을 따르되 藥에서만은 鄉藥을 쓰는 過渡期的인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의 中國醫學의 틀에서 벗어나 固有醫學의 形態를 잡고자 하는 初期段階의 自求策으로 보여진다.

方中鄉藥目草部에서 藥物의 順序는 대체적으로 證類本草의 順序에 따랐으나, 草部 이외의 石部·禽部·獸部·蟲部·魚部 등의 藥物을 羅列하는 데는 證類本草의 配列順序를 따르지 않고 서로 混合하여 羅列하고 있다. 또한 證類本草나 기타 모든 本草書에서 草部の 中品에 나오는 天門冬 하나만은 草部に 있지 않고 맨 뒤에 따로 놓여 있으며, 그 說明이 다른 것보다 자세하다.¹⁹⁾

上記한 內容을 볼 때 方中鄉藥目草部는 「方中鄉藥目」이라 題目을 하고 各部를 나누어 整理하면서, 草部는 《證類本草》의 次例에 따라 撰述하다가 草部 이외의 藥物은 수가 적어 나누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草部の 아래에다 整理한 것이며, 天門冬은 그 內容 중에 빠져 나중에 補闕한 것 같다.

III . 結 論

《鄉藥救急方》은 高麗 中葉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固有의 醫書로, 그것의 醫史學的 價値에 대한 새로운 照明이 필요하여 考察하여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鄉藥救急方》은 高麗 中葉에 江華島의 大藏都監에서 刊行되었으며, 이 原刊本을 바탕으로 朝鮮 太宗 17년 (A.D. 1417年) 7월에 義興縣에서 崔自河가 重刊한 것이 日本 宮內廳에 있는데, 現存하는 韓國 最古의 醫書이다.

2. 本方書의 主要內容은 《千金要方》, 《外臺秘要》, 《聖濟總錄》, 《太平聖惠方》, 《肘後方》, 《經驗良方》 등의 內容中 通治方이나 우리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藥材로 되어진 處方을 拔萃하여 놓은 것이며, 우리 固有의 處方이나 辨證論治에 入脚한 內容은 보이지 않는다.

19) 前掲書, pp. 99-102.

3. 本方書는 醫學理論을 研究 定立하는 醫師들을 위한 方書가 아니라 疾病에 대해 一般大衆들이 손쉽게 處置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民間救急方이다.

4. 本方書가 成立되는 過程에서, 上記한 中國醫書 뿐만아니라 佛敎 및 道敎의 思想이 吸收되어 動物 등의 藥物을 使用함에 있어 制限을 加했다.

5. 本方書에서 上中下 三卷의 方文과 方中鄉藥目草部의 撰述者 및 時期가 다르다고 推定되며, 方中鄉藥目草部는 원래 方中鄉藥目으로 題目하고 各部를 나누어 整理하려고 했으나, 草部만 《證類本草》의 編纂 順序를 따랐을 뿐, 나머지는 順序 없이 섞어 草部の 아래 羅列하였다.

《鄉藥救急方》에 대한 醫史學的 考察은 本方書를 復原하는 過程에서 얻어진 內容에 대한 考察로 향후 이의 完全한 復原과 아울러 深度있는 研究가 必要하다고 여겨진다.

< 參 考 文 獻 >

1. 李朝實錄, 東京, 學習院東洋文化研究所, 1956.
2. 韓國醫學大系, 서울, 麗江出版社, 1987.
3. 鄉藥集成方全, 서울,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4.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5.
5.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 서울, 探求堂, 1982.
6. 金信根,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大學校, 1987.
7. 唐慎微, 證修政和經史證類備急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2.
8. 三木榮, 朝鮮醫書誌, 東京, 學術圖書刊行會, 1956.
9.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東京, 1962.
1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1. 孫弘烈, 韓國中世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7.
12. 鄭勉, 高麗醫學의 自主性에 對한 考察, 慶熙大學教碩士學位論文, 1988.